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 一個月 八拾錢 一年分 九圓 ...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中國의國權回復運動과社會運動

一

目下에 中國全幅을 擾亂하는 排外運動은 到底히 그 底止될 바를 知치 못하고 擴大되여 가는 것은 連日外報가 陸續報道하는 바이오 또 同運動이 單純히 一時的 被動的 騷動에 그치는게아니라 여러가지 方面으로 觀察하야 자못 稍快悲壯한 重大事態이라 함은 吾人의 應歷히 橫豎說破한바 이어니와 更히 一步를 進하야 同運動의 由來 源因을 闡明하는것도 切實히 必要한바이다

二

이번 排外運動은 그 動機와 源流로보아 二種으로 區別할수잇나니 즉 中國의 國權回復運動과 自覺한 無産階級의 社會運動이 그 合流를 成하고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國權恢復運動과 社會運動은 只今 共同戰線을 作하야 排外運動으로 轉化한 結果 實際上으로는 確然한 區分을 세우기는 困難하다 國民黨을 中心으로한 赤色分子의 活動이 勞農露國과 서로 氣脈을 通하야 勞働階級의 蠱動을 操縱하고잇는것도 掩蔽치 못할 事實이려니와 故孫文氏 畢生의 主張이오 또 國民黨右傾分子의 信條인 國權回復 不平等條約의 撤廢 國際的 平等主義의 主張等을 主眼으로한 運動은 그 思想的 背景 및 實際運動의 方面이 多少 相異하게 되여잇지마는 이 兩大潮流가 實際에 表現되는 데는 判別하기 困難하게 되다 그럼으로 中國의 社會運動은 政治的 民族的 色彩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比하야 더욱 濃厚하게 된다 이번 上海罷業時에 學生의 感情을 激發함에 가장 有力한 原因은 治外法權 및 租界行政機關이 騷擾者를 任意處分함에 잇는것을 보아도 可히 알 바이다

三

元來 中國의 治外法權은 中國民 더욱히 靑年等의 가장 不快 苦痛을 感하는 바이다 저들이 治外法權에 對하야 猛烈한 反對의 意志를 表示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西洋은 勿論 東洋에서 오즉 中國民만이 治外法權의 屈辱下에 잇다 土耳其는 再昨年 七月二十四日 「로산누」條約 第二十八條에 依하야 完全히 撤廢되고 暹羅도 一九〇九年 英暹條約 및 一九二一年 米暹條約에 依하야 何如이 撤廢되엿스나 오즉 中國만이 이 屈辱을 當하고잇다 그리하야 一九一九年 巴里講和會議와 一九二一年 華盛頓會議에서 中國代表가 이 問題에 對하야 悲痛苦悶을 繼續하엿스나 委員會를 設하야 事實調査를 着手할 事를 決議함에 그치고 何等의 新措이 無히 列强의 凌侮를 甘受하고잇지아니한가 그리고 日本은 大隈內閣當時에 締結한 例의 二十一個條로써 國家로서의 獨立權을 蹂躪하고잇다 이와가튼 外國의 侮辱을 受하고잇는 中國民이 排外運動을 惹起함이 當然以上의 當然이라 아니할수업는 것이다

四

그뿐아니라 「租界回收」도 저들의 近來자못 熱中하는 問題의 하나이니 一八六〇年 北京條約 追加條約으로서 發端이된 共同租界制度는 治外法權과 相俟하야 國家內의 別段國家의 觀이 잇서 國家主義者 및 愛國靑年의 感情을 隨時로 挑發하는 者이다 例컨대 租界內에 居留하는 中國人에게 外國人이 納稅의 義務를 强要하면서 租界內의 政治的 支配權에는 何等의 權利를 認定치 안코 一種의 形式인 諮問機關이 잇슬 뿐이니 權利업는 義務를 强要하는 것이 엇지 智識靑年의 참아 忍從할바이랴 其他에도 租界라는 安全地帶를 利用하야 武器의 密輸 阿片吸煙者의 放任等 人道上 體面上 各種의 不平이 續出되고잇다 그럼으로 中國民은 積年의 鬱憤을 一雪하라는 悲壯한 努力의 機會를 腔하야 排外運動으로 爆發되는 것은 勢의 自然한바 이다

五

이와가튼 關係上 中國의 이번 排外運動은 嚴正한 意味에서 말하는 社會運動이라느니보다 民族的 解放運動이라함이 妥當할것이다 勿論 그 導火線이 外國人의 資本家와 勞資를 對抗함에잇스나 罷業이 全國的으로 擴大되는 直接間接의 有力한 動機는 民族的 敵愾心에서 爆發되는 排他的 感情에 잇다 다만 赤色分子가 이 機微를 巧히 利用함에 成功이 잇슬 뿐인가한다 要컨대 中國의 社會運動은 國權回收運動과 分離되지 못하고 兩者가 並進하야 最後勝利의 陣地를 到達하게 될것이다

雪恥大會에 參加者十萬人 排日英의 印紙를 散賣

(北京十日發) 雪恥大會에 十日午前十一時外지의 參會한 學生 勞働者 商人約十萬人과 奉天軍國民軍의 一部도 秩序維持의 目的으로 參加者는 勿論이오 通行者에게도 日英을 너머트리라고 印紙부친 徽章을 上海罷工後援의 名으로 一枚二十錢以上에 팔며 人力車는 盛히 宣傳旗를 옷고 다름질하더라

敎會經營의 女校 生徒五萬名退學 學校는 閉鎖할 至境

(北京十日發) 杭州의 商務總會는 日英貨販賣禁止策으로 各商店의 日英貨에 封印하고 十二日부터 徹底的 經濟絶交를 計劃하야 다하며 그리하야 此地의 排日英熱은 猛烈하야 遂히 英國基督敎會經營의 女學校生徒 五萬名은 全部退學하고 學校는 閉鎖할 境에 至하얏더라

段執政의 大困惑

(北京電) 段執政은 上海事件以來 精神上에 非常히 煩悶하든 곳에 더 過日 漢口事件에 對하야 日英兩國의 訪問을 受한 時에도 正義人道를 爲하야 되도록 此事件을 速히 解決하고 십다고 語하야 매우 元氣가 銷沈하얏더라

保障條約과 英佛 決定的 協調를 보앗다고

(倫敦 九日發) 獨逸의 保障條約提案에 對한 回答에 關하야 英外相과 佛外相에게 交付할 回答은 英佛의 決定的 協調를 示하엿다 그리하야 今에 英佛間에는 此問題에 關하야 오즉 公式決定을 見치 못하엿스나 完全한 協調가 成立하얏다 더욱이 英國은 「벨사유」條約에 依하야 決定된 「라인」國境을 保障하고 若 「라인」地帶에 關하야 獨逸軍事地帶 條項에 違反되는 行動을 成立함에는 英國은 이것으로 開戰의 原因으로 思惟할것이라 又獨逸의 東部國境에 關하야 英國은 「벨사유」條約의 義務條項에 對하야 忠實할 뿐을 明瞭히 聲明하고 同時에 佛國에 對하야는 萬若 聯合國中의 何國이든지 第三國의 攻擊을 受할 時는 聯合國의 安全保障을 爲하야 戰爭地帶에서 同樣 「라인」中立地帶를 利用하는 權限을 與하겟다 「쌍」外相은 記者團에 對하야 保障條約에 依한 獨逸과의 協調를 見할 機會는 大할것으로 余는 此를 熱望한다고 하엿다

佛總理의 飛行 『모록고』에 向한다

(巴里無線九日發) 佛國閣議의 結果 國務總理 판르뷔에氏는 本日 飛行機로 『모록고』에 向하야 出發하기로 公表하얏다 軍令長官 「로-럭」 아이약지氏가 隨行할터인 이며 「도무니」將軍도 隨行할터인데 一行은 四日間 「모록고」에 滯在하야 前線도 訪問하고 「라요테」元帥와도 懇議할 豫定이더라

獨新聞의 論評

(伯林十日發) 『지리렌드뷔리』 우엔』 으로 巴里, 倫敦, 伯林諸新聞은 「제네바」의 協調는 獨逸을 犧牲으로 하야 비로소 成立한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獨逸新聞은 一齊히 佛國에 獨逸領土通過의 權利를 與하는 協約에는 決코 獨逸은 調印치 아니하겟고 이러한 獨逸의 國際聯盟加入을 促進하는 所以는 아니라고 論하더라

關稅率 調査委員會

(東京電) 關稅率調査委員會는 十日午後 幹事會를 大藏省에 열고 具體的 調査에 着手한바 大體의 方針으로 入稅는 될수잇는대로 重量稅를 칠方針으로 調査統一에 着手하얏스나 右는 政府로부터 一般關稅率改正法律案으로 來議會에 政府가 提出할것으로 爲先 審議決定을 할터이더라

國境發展計劃과 朝鮮內私鐵電化 鐵道局 齋藤技師談

列車運轉의 動力을 水力電氣乃至 朝鮮生産인 石炭을 利用하야 得하는 電氣에 依하든지 無煙炭의 點으로 보면 蒸汽에 依함보다 有利함이 多하나 此의 設備變更에 多額의 費用을 要함과 輸送狀態가 相伴치 못하기 때문에 貧弱한 朝鮮에서는 急速한 實現은 望하기 難하다 若或 잇다하면 차라리 一哩라도 鐵道를 延하지 안흐면 아니될 狀態이다 然이나 商業이 開發되고 經濟程度 가 向上하야 貨客의 來往이 頻繁을 加하며 列車數가 多하게 되면 自然電力의 便이 經濟的으로 되여 漸次採用하게 될것은 分明한 事이며 鐵道局에서도 爲先 京仁間의 電化는 엇더한가 思料로 보아서 時期의 問題라 할수잇다 以上은 旣設한 鐵道를 指함이요 此로부터 新興코자 하는 民間私設鐵道에 就하야는 工事認可線乃至 免許線中에 分明히 電氣의 便이 得策을 思하는 部分이 不少하며 且自己가 그를 標榜하는 者도 往往有한 線樣이라 卽 最初의 計劃이 電氣에 依하도록 計劃되엿다하면 蒸汽에 比하야 「카-푸」와 勾配가 急한 場所에 對하야는 工事費가 越等低廉하게되며 또는 竣工後의 經常費가 少하다 特히 咸南線의 五老里門間에 잇는 土城附近의 水電計劃과 如한것은 可히 可能性이 잇는 問題일는지 알수업다 然이나 水力電氣 是亦 鐵道運轉만의 唯一한 目的으로 計劃하지 안코 鐵道는 或은 採鑛整理나 又는 肥料製造等의 附帶事業으로 一部에 加하엿다하면 極히 有利한 事業이라 卽 結論으로는 朝鮮內의 水力電氣는 燃料 農村化學工業鐵道等 모든 動力方面을 一括한 境遇에 비로소 其價値가 認容될 問題이요 旣設鐵道에는 隧道가 多함等의 境遇以外는 經濟的으로는 營業上의 誤算이 頻發하야 至難한 問題이다 云云

滿洲에 幼稚園設立計劃 女子靑年會에서

滿洲女子基督靑年會에서는 朝鮮女子基督靑年會聯合會委員長 黃愛施德孃이 來滿하얏슴을 機會로 去七日午後三時半부터 同會任員會를 當地禮拜堂內에서 開催한 後 아즉이 地方에 어린子女를 敎養할 만한 敎育機關이 업슴을 慨歎하는 同時에 同會에서 幼稚園設立 作을 決議한 後 同五時頃에 閉會하얏는대 爲先 同會會員側에서 三百圓의 義捐金을 모와서 滿南學校講堂을 빌려 開始하면 敎員一人의 俸給은 米人宣敎師側에서 負擔할듯한 次次 一般社會의 同情을 어더서 速히 完全한 基礎에 나가도록 實現코자 한다더라(滿洲)

三郡聯合庭球 優勝은 鎭川軍

陰城庭球會主催와 本報支局後援下에 去七日에 三郡聯合庭球大會를 開催한바 參加選手는 十四組에 達하야 一勝一敗로 觀衆의 拍手聲과 後援隊의 應援聲이 振動하야 大盛況으로 午後七時頃에 閉會하얏는대 優勝은 鎭川軍에게 歸하얏다 더라(陰城)

湖南蹴球大會 優勝은 禾湖軍

지난六、七兩日間 禾湖靑年會主催와 本社禾湖支局後援으로 當地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 第二回湖南蹴球大會를 擧行하얏섯는대 參加團體는 合七團體이엿섯는바 決勝戰은 扶安和友團對禾湖大成團으로 되얏는바 禾湖의 優勝으로 돌아가고 七日午後四時半에 無事閉會하얏다더라(禾湖)

康津公普基地問題 安協으로 解決 新基地로 決定

오래前부터 紛糾中의 康津公普校新築基地問題는 去五月廿三日午後 有志의 妥協으로 同日午後三時에 面民大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 金大奎氏의 開會辭로 비롯하야 說明이 잇슨후 李基柱氏의 基地選定의 豫算說明이 잇섯든바 康津發展上 舊基地보다 新基地가 낫겟다하야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旣히 有志者側의 寄附金은 六月內에 沒收하야 着工하기로하고 同下午六時頃에 無事히 閉會하얏다더라(康津)

五月會의 討論會 來十四日에

全北井邑邑內에잇는 思想團體인 五月會에서는 六日下午九時에 第一回月例會를 當地勞農聯合會事務所에서 開하고 幹部諸氏의 司會下에 討議하고 來十四日下午九時에 靑年會館에서 討論會를 開催할 件을 決議하엿다는데 演題와 演士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井邑)

◇演題 吾人의 前途를 向上함에 勞力이냐 物質이냐

◇演士 勞力便에는 崔在成、吳寅泳、李東燮 物質便에는 李洪鍾、朴淳載、裴南鉉、金昌培

金堤幼校의 音樂童話歌劇 大盛況으로 閉會

全北金堤邑內 玉山敎會幼年主日學校에서는 旣報한바와 如히 지난七日下午九時부터 同會主催로 印基淳氏司會로 音樂童話歌劇을 開催한바 觀衆은 數千에 達하야 場內場外에 立錐의 餘地업는 盛況을 이루고 同十一時十分에 閉會하엿다고(金堤)

泰仁에서 湖南蹴球大會 十三日부터兩日間

今般 元泰仁 泰仁靑年會主催로 一個圓으로하야 湖南蹴球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大會要項은 如左하다더라

時日 六月十三日부터 十四日外지(二日間)

場所 元泰仁邑內

羅州勞働夜學 第三部開學

羅州勞農共濟會의 經營으로 羅州勞働夜學會를 開學하엿다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現在 敎授中에 잇는 五十餘人의 生徒는 全部가 學齡의 超過한者와 및 生活困難으로 他校에 入學치 못하든 少年들이므로 要사이 壯年勞働者의 熱烈한 要求에 應하야 去二日午後八時에 第三部夜學會를 開學하엿는대 熱誠으로 敎務하는 敎師朴泰根、羅晶勳、金東鉉諸氏의 誠意를 一般은 感謝한다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要 住所氏名明記

大邱有產者諸君에게

◇有產者諸君이여 諸君의 所有한바 富 그것은 世上無産者의 勞働의 結果를 收集한것임을 알고 스스로 自覺하기를 바란다 社會의 生活資料는 오직 少數에 不過하는 富者諸君의 任意로 不自然하게 處分된다면 그는 可히 容恕치 못할것이다

◇有產者諸君이여 諸君은 人間이다 人間인 以上 또 사람과 사람이 모혀서 共同生活을 營爲하는 社會가 存在하는 以上 社會와 아모 干涉이 업고야 되겟느냐 언제나 社會的으로 還元될 性質을 가진 富 그것은 社會共同生活을 爲하야 消費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大邱有產者들은 單純한 사람으로서의 救助할 責任觀念外지 아니하고 그 意識도 이르지 못한 狀態에 잇는 것이 事實이다 오늘날 生活難으로 말미암아 多數한 社會人員의 慘狀은 날로 눈압해 展開되어 잇것마는 所謂 有產階級들은 自己의 淫樂이나 便宜를 爲하여서는 一日에 多額을 앗기지 아니하면서도 무서운 飢餓死線에서 헤매이는 無產者를 爲하야는 도로혀 同情은 姑捨하고 沒情한 눈살을 찌푸림이 엇지 잇슬뿐이다

◇아 沒情한 有産者들이여 눈물이 업느냐 피도 冷却되고 말엇느냐 相救相助의 愛情도 枯渴되고 말엇느냐 보라 나날이 慘酷되는 社會相을

◇의지할곳업고 집업는 老人과 天涯孤獨한 어린이가 飢餓로 生活의 根據를 被奪하고 乞食彷徨하는 無産者 그들의 참아 사람의 肝臟을 가지고는 참아 볼수업는 現象을 보면서도 눈물이 아니 흐를수 잇슬가

◇可憐한 貧民의 呼訴는 街頭와 路傍에 慈善家의 溫情을 부르짓는 聲이 우리의 耳膜을 울릴뿐이다 有產者諸君이여 各自의 良心을 들이여 가튼 同胞의 悲慘한 現狀에 人間愛의 常情이 湧出할 것이다 그우히 힛슬은 바이다(大邱 徐相喆)

醴泉庭球大會 兩支局主催로

醴北槐泉에서 東亞本報兩支局의 主催로 去七日午前九時에 當地普通學校運動場에서 全醴泉庭球大會를 開催하얏는데 意氣滿滿한 選手의 參加數가 八十名이엇스며 觀衆이 數百名에 達하야 大盛況을 呈하얏다더라

市民蹶起 面長排斥問題로 面協議員에게 辭職을 勸告해

金泉面長排斥事件은 本報에 旣報한바 어니와 面長과 面協議員間에 數個月동안 暗暗裡에 反目하여오든 中 市民有志側에서 其內面의 眞相을 調査하고 去七日午後七時半에 金泉勞働館前庭에서 市民大會를 開催하고 數十人의 聽衆에 熱辯을 吐한 後 委員을 選定하야 面長排斥은 不信任案을 提出하야 其理由를 主張하고 市民有志側大部分은 面協議員의 排行을 彈劾하야 左와 如히 判斷하는 바 결국 市民大會를 開催하여 午後十二時에 閉會하얏다더라

決議

一、金泉面協議會員 伊藤孝藏、皮鳳潤、李慶一、捧藏、大井秀之、山本六藏、福岡直助、洪在淑、黃鍾秀

右議員의 行動은 職務를 怠慢하고 民意에 反한것으로 否認하야 茲에 辭職을 勸告함

右決議함

大正十四年六月七日 金泉市民大會

宣言

吾人은 金泉市民의 幸福을 圖하야 面協議會員의 辭職을 勸告하고 此의 實行을 期함

右宣言함

大正十四年六月七日 金泉市民大會(金泉)

忠淸老會總會

忠淸老會에서는 去三日午後八時부터 三日間 豫定으로 忠州邑內 耶蘇敎禮拜堂內에서 第二回定期總會를 開催되엿는바 忠北全道耶蘇敎會에 對한 모든 諸般事項과 將來進行方針을 討議하엿다더라(忠州)

裡里靑年討論會

裡里靑年會敎養部에서는 豫定과 가티 去六日午後九時 裡里幼稚園內에서 「우리의 文化發展에는 言論이냐 말이냐」의 問題로써 可否 君同會下에 討論會를 開한바 可否兩便의 巧妙한 辯論이 잇슨후 會員의 熱狂的 主張이 잇서 結局은 말이라는 否便이 勝利하엿는데 聽衆도 意外로 多數이엿슴으로 空前의 大盛況이엿다더라(裡里)

四公普聯合庭球

去六日에 堤川郡白雲面 平洞公立普通學校에서 堤川、忠州、槐山 四處의 普通學校聯合庭球大會를 開催하고 興味잇는 競技가 잇슨後 優勝은 堤川公立普通學校에 돌라갓다더라(堤川)

雪上加霜의 慘狀 大小麥도 水泡 昨年에 旱災、今年에 大雹

慶北醴泉郡一帶에는 正月부터 비가오지 안하서 一般農民의 憂慮가 極度에 達하엿든바 去月中에 비가 와서 얼마 安心하엿스나 去月二十八日에 約一時間이나 雹이 와서 農作物의 被害가 極甚한中 其中에도 第一甚한것은 大小麥인데 昨年旱災로 困窮에 빠진 農民의 唯一한 希望이든 大小麥이 一粒도 收穫치 못하게 되엿스며 그동안의 慘狀은 極度에 達하얏는데 이를 救濟할 目的으로 郡當局과 協議한 後 去四日正午에 當郡廳內에서 靑年會員八名과 官公署와 民間有志가 合하야 同情金을 募集하기로 하엿는데 아래와 가튼 同情金이 잇섯다더라(醴泉)

醴泉郡廳職員一同 俸給百分之二 醴山普通學校職員一同 同上 醴山公普學校職員 醴西書等小學校職員一同 同上 金融組合職員一同 同上 金東錫、金東鍾、馬鍾河、趙鍾濟、金獻碩、金炳吉、金東鎭、金顯濟、金東泰、文琪淑、馬秉圭、金東根、增、宋鍾大、尹永善、宮部政治郎、岡興泰、陳昌奈、尹甲敦、芹澤武太郞、金紀衡、崔相基、林愚滉、金元鐸、沈英燮、金洪杏 一圓五拾錢 十郎三圓 宮部卿太郞、文遂東、新井八重藏、金郡守夫人 各二圓 民間側計 三十六圓

晉州靴工組合 復興總會

晉州洋靴職工組合은 昨年四月에 創立된 以來 그동안 萎靡의 狀態에 잇섯든 바 이를 慨嘆하든 有志諸氏의 發起로 去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 晉州勞働共濟會館內에서 復興總會를 開하고 會員二十餘名이 出席하야 同組合 復興方針及維持問題等을 決議하고 다음과 가티 任員을 選擧하고 同午後二時半에 閉會하얏다더라

組合長 姜㵑文 副組合長 金道學 書記會計 黃瓚得(晉州)

河東勞働會 臨時總會

慶南河東勞働會에서는 去六日午前十一時에 臨時射亭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 金基完氏司會下에 過去의 報告를 마친 後 各項을 決議하엿스며 河東勞農聯合會의 任員改選이 有한後 午後二時에 閉會하엿다더라(河東)

下水道問題로 總督에 陳情 元山市民이

去八日下午九時부터 元山一般有志及各團體代表者 三十餘名이 元山靑年會館樓上에 會集하야 當地下水道問題로 討議한바가 잇섯는대 總督府에 陳情委員을 派送하기로 하고 張錫祐氏 外 一人을 選定하얏는바 日本人側에서는 旣히 委員二人을 選定하얏슴으로 不日上京하리라더라(元山)

元山在庫米穀 二萬餘石

元山稅關支署調査에 依한 當地五月末現在의 米穀及滿洲粟在庫數는 如左하다고(單位石)

精租二八五、二 玄米八〇八 白米一一〇〇 碎米八〇 合計四、八四〇 滿洲粟一五、九七六(元山)

咸南養蜂狀況 飼養戶數五千戶

咸鏡南道의 養蜂은 飼養戶數五千四百四十三戶로 巢箱은 在來種이 一萬二千九百五十六箱이요 改良種이 一千一百七十六箱인데 蜂蜜이 八萬八千九百六十斤 價格六萬四千二百八圓으로서 前年보다 一萬二千六百餘斤 約九千圓의 增加이며 蜜蠟은 一萬一千四百十六斤 價格八千三百四十六圓으로 前年보다 四千二百圓의 減少라더라(元山)

元山手形交換高

元山手形交換所의 五月中手形交換高는 枚數合計六千四百十三枚 金額合計一百四十七萬三千十七圓四十一錢으로 前月에 比하야 枚數는 四百八十一枚를 增加하고 金額은 十六萬五千七百二十九圓六十七錢의 減少이며 前年同月에 比하면 枚數二十三枚增이요 金額十一萬九千九百九十七圓六十二錢의 減少인데 其內譯을 示하면 小切手四千七百九十八枚 金額一百四萬三千十七圓九十八錢 爲替手形二百三十八枚 金額五萬五千九十二圓九十四錢、約束手形八百四十六枚 金額二十八萬九千三百六十四圓十二錢、支出官及出納官吏振出小切手四十一枚 金額二萬三千七百七十九圓九錢、郵便爲替證書四百三十五枚 金額三千五百八十二圓三十三錢、雜證書三十五枚 金額二萬七千七百四十二圓二十三錢 合計六千四百十三枚 金額一百四十七萬三千十七圓四十一錢이더라(元山)

新人同盟組織 元山에서 讀書그룹의 後身

元山讀書그룹에서는 去六日下午三時부터 元山靑年會館樓上에서 臨時總會를 李宗敏君司會下에 開會하고 在來讀書그룹이란 名稱을 元山新人同盟이라 改定하얏스며 規則通過가 잇슨후 委員을 如左히 選擧한後 閉會하얏다더라

代表委員 林昞均 庶務部委員 趙衡圭 林化賢 河榮洛 學藝部委員 李敬夏 李宗敏 林石鎭 崔永鎬 南相濚 金錫明(元山)

滿洲粟 四千袋又入荷 時勢는 依然活氣

咸鏡線의 北滿洲粟은 去七日 南華丸으로 四千三百七十八袋가 又復入荷한바 此의 消化는 咸興을 第一位로 京城 湖南線方面에 發送하는 것이 一日合計約二車平均에 達하며 元山附近地方의 需要도 相當한바 一方同一한 北滿洲粟으로 南滿線을 經由하야 元山驛에 到着하는 것이 一日約一車式 잇다 그러나 小麥도 今後一個月 馬鈴薯等도 一個月半可量은 잇서야할터인데 其時外지의 代用食物로는 粟以外에 他物이 無함으로 粟取引은 當分間 樂觀으로 市勢도 依然活氣이라더라(元山)

支下에 脚戲大會

江原道伊川郡樂壤面支下市에서는 陰五月端午에 脚戲大會를 開催하는데 目下大規模로 準備中이라 當日은 大盛況을 豫期한다더라(伊川)

元山組銀業績

元山組合銀行 五月三十一日現在 半月分 諸預金合計 三百三十萬五千一百六十六圓 貸出金合計 七百八十一萬四百二十二圓으로 前半月에 比較하면 預金은 二十三萬四千四百圓 貸出金은 二十三萬七千八百十八圓이 共히 減少하얏는데 各科目別은 如左하다더라(單位圓)

◇預金 定期預金 一、六〇一、〇三四、當座預金 五六四、八八〇、特別當座預金 六二六、〇六四、諸預金 五一三、一八八 合計 三、三〇五、一六六

◇貸出金 貸付金 四八七六、六八二、當座貸越 一九九八、九四六、荷爲替手形 九三七、五四六、荷爲替 〇五、三七三、公共團體貸付 一二九一、八七五、合計 七、八一〇、四二二(元山)

寶昌靑年總會

北靑郡寶昌靑年會에서는 去月廿八日에 總會를 開하고 任員을 左와 如히 改選하얏다더라

理事長 金斗彦 理事 申永福 蔡仁化 金炳圭 金鼎健(北靑)

泥谷靑年總會

北靑泥谷靑年會에서는 去五日에 定期總會를 開하고 任員을 左와 如히 改選하얏다더라

委員長 金熙淳 委員 李柱日 金明極 趙亦煥 魯應萬 李治 劉載淳 李柱乾 李枝澤(北靑)

咸南庭球選手權 元山檜垣組가 獲得

京城日報元山支局主催의 第二回全朝鮮庭球選手權爭奪 咸南北豫選大會는 松興里海水浴場에서 去八日午前十時부터 開催하얏는데 出場參加組는 二十五組五十名으로 咸興에서 一組가 出場하얏슬 뿐 全部元山選手인대 最後優勝者는 趙倶樂部 檜垣、小野組라더라(元山)

安谷靑年總會

北靑郡安谷靑年會에서는 去五日에 總會를 開하고 任員을 左와 如히 改選하얏다더라

理事 李玉籍 李運鎬 李甲永 康俊吉 李宗均 李松永 李憲錫 張東殷 李枝弘 李時濃 李柱元 李允鎭(北靑)

貞信幼稚運動

原州貞信幼稚園에서는 去六日(土曜)午前十時에 原州邑北門外 亭地松林에서 遊戲運動大會를 開催하엿는데 觀覽者가 多數來集하야 大盛況을 呈하얏다더라(原州)

四郡聯合庭球 十四日江東에서

江東靑年會에서는 來十四日에 江東成川順川陽德四郡聯合庭球大會를 江東靑年會코-트에서 開催한다는바 有志의 同情金과 寄贈品이 多大하야 大盛況을 豫期한다더라(江東)

楊光水利組合 一個人의 經營으로 全住民이 크게 歡迎

陽川郡楊光面北水浦驛前은 비록 江土驛前이나 水利가 不便하야 每年 水災나 或은 旱災의 被害가 不少함으로 一般地主側에서는 一大頭痛꺼리로 지내오나 別般의 妙策이 업던바 이를 探問한 安東驛朝鮮人 金宗健 日本人 寺川唯吉 兩氏가 一般地主에게 諒解를 어더 가지고 直接 道當局에 交涉하야 個人經營으로 水利事業을 始作하야 一邊 古津江沿岸에 堤防工事를 하며 灌漑所에 工事에 着手하야 事業을 進行하던 次에 郡守가 出張하야 視察하고 이를 個人事業으로 經營한다 一般地主側은 勿論 經營하는 個人에게도 莫大한 損害가 잇스리라하야 中止할 命令하얏슴으로 이를 經營하랴든 兩氏는 不得已 失敗를 當하게 되엿스나 이는 死活問題라 容易히 中止는 할수 업슴으로 地主組合에 引繼식히기로 當局에 契約하고 着手한 事業을 價値잇게 繼續하야 不遠間竣工이되리라하며 灌漑는 去一日부터 開始하엿는바 成績이 매우 優良하며 郡守도 다사 解하야 該事業發展上에 有利한 事業임을 道當局에 交涉中임으로 道當局의 認可指令이 나오기만 苦待中이라더라(楊市)

水橋에 脚戲運動 市民主催로 端午에

黃海道松禾郡 蓬萊面水橋市에서는 同市民主催로 來端午佳節을 期하야 靑年學生聯合運動會와 脚戲大會를 開催한다는바 時日과 脚戲大會賞品은 如左하다하며 方今 準備에 紛忙中이라더라

時日 四日 靑年學生聯合運動會 五六兩日 脚戲大會

脚戲賞品 一等 大牛一頭 二等 中牛一頭 三等 白木一疋(松禾)

養成學校에 寄附金遝至

黃州郡永豐面永豐里耶蘇敎長老敎會經營인 私立養成學校에서는 校舍新築과 基本金을 補充하기爲하야 當局의 寄附許可를 어더서 黃州一郡을 限하야 寄附金募集에 着手하얏는바 近日에도 如左한 寄附가 잇섯다더라

片倉黃州農場 三百圓 李之松 三十圓 林益根 李東熙 朴進鉉 各二十圓 唐澤爲次 十五圓 洪秉周 多田修作 二木熙彌 趙昌瑞 張萬慶 朴禎翰 趙錫勛 黃東翊 林鵬鵬 尹文泰 各十圓 延應源 安敬哉 金成弼 崔泰忠 一金基璜 金錫璟 管野吉三 徐致福 宋昌穆 金致貞 金泰希 李元璋 黃錫柱 朴啟道 朴潤長 文斗煥 賓錫觀 金晶燁 金鐘璇 尹東秀 李德松 金相禹 孔昌淳 玉炳 河趙鼎鎬 尹完奎 賓重默 各五圓 五圓以下 略(黃州)

安州에도 脚戲 來端午節에

安州城內信義里市民主催로 今年端午에도 例年에 依하야 脚戲大會를 開催하고자 去七日부터 一般市民에 寄附를 請하기 始作하엿다더라(安州)

萬城脚戲準備 來端午節에

安州郡萬城市에서는 萬城市民主催와 萬城靑年俱樂部後援으로 來陰五月五、六、七日 三日間을 期하야 脚戲大會를 開催한다는데 方今 委員諸氏는 準備에 奔忙中이며 賞品은 如左하다더라

一等 大牛一頭 二等 中牛一頭 其外三人勝에게도 賞品이 有하다(萬城)

海州圖書創立 故劉氏의 遺志로

海州面에서는 본래부터 圖書館을 經營하고저 하얏스나 經費問題로 因하야 오래동안 懸案中에 잇섯다가 富豪劉淳益氏가 世上을 떠난뒤에 그 劉氏家에서는 여러가지 事業을 計劃하고 其中의 하나로 면저 이 圖書館의 懸案中에 잇슴을 듯고 數千圓의 寄附를 내이어 北本町 海州面事務所 저터에다 二層으로 建築하야 下層에는 消防機具를 두게 하고 上層은 圖書閱覽所를 만들 二千圓可量으로 三百餘卷의 書籍을 買入하야 小規模의 圖書館을 만들어 六月六日부터 一般에게 公開한다는바 아즉 注文한 書籍이 다 오지 안흠으로 더러 처음이 되야 未備한 것이 만흐나 以後부터는 次次 完實한 圖書館이 될것이라하며 第一日은 閱覽者數가 不過十餘人이엇스나 以後는 閱覽者도 만허질듯하다더라(海州)

成川各地의 金銀鑛好績 經濟界는 活況

成川各地에는 近日 金銀鑛이 續出되는 鑛業인데 其原因은 久原製鍊所復活이 第一因이라는바 近日에 況을 大要紹介하면 아래와 갓다

一、麻田鑛山 鑛主 鈴木商店經營의 成川郡麻田所在로 鑛夫가 百餘名을 사용하며 每日百餘噸을 採掘한다하며

一、檜倉金鑛은 朴鐵熙氏鑛主로 아즉 小規模이나 將來希望이 만으며 漸漸擴張하리라하며

一、陵中金鑛은 當地十一人의 組合經營으로 鑛夫多數를 算하고 大規模로 事業을 進行하다

其外에도 三德鑛山이 有하며 李完鎔氏經營의 大邱鑛山 四作面 銀水里鑛山等 大小를 合하면 數十을 算하는데 이로 因하야 成川經濟界는 好況을 呈하엿다더라(成川)

銀波에 脚戲大會 夜間은 素人劇

黃海道銀波에서는 來端午節을 當하야 當地市民主催로 陰五月五六兩日間 脚戲大會를 開催하고 夜間에는 假裝行列、魔術、素人劇等의 餘興이 有하리라는데 賞品은 一等에 大牛一頭 其以下에도 賞品이 만타더라(銀波)

龍岩脚戲會 兩日間大盛況

平南順川郡倉沼面龍岩里民主催 脚戲運動은 豫定과 如히 去六日午前十時에 會長 康利杰氏司會下에 開會하얏는데 觀衆은 無慮數千에 達하엿스며 其翌日도 亦是數千의 觀衆으로 大盛況裡에 午後五時半에 決勝을 하고 餘興으로 豫選者十八人과 및 龍岩里靑年脚戲選手의 興味잇는 試合이 잇슨後 午後七時頃에 無事히 閉會하엿는데 入賞者氏名은 如左하다더라

一等 申德洙 二等 李錫勳 三等 趙元俊(順川)

沙里院에 哲學講演

沙里院基督靑年會에서 文學士蔡弼近氏를 請하야 去六日에 特別講演을 開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當日은 定刻前부터 雲集한 聽衆은 無慮千名에 達하엿는데 金海進君의 司會로 演士蔡弼近氏는 登壇하야 『人類는 무엇을 目的하고 어대로가느냐』?란 題로 熱辯을 吐하야 聽衆에게 큰 感動을 주고 同十時半에 閉會하엿더라(沙里院)

敬愛校運動盛況

黃海道長淵郡 私立敬愛學校에서는 去四日에 兒童陸上大運動會를 擧行하엿는데 入場者가 四五千에 達하고 當日寄贈金品이 多하엿는바 本郡樂隊와 海星幼稚園 活動寫眞巡廻樂隊의 兩處樂隊로 興樂中에 生徒及觀衆은 無限한 興味가 잇섯다

로 勝日快樂하엿스며 또 午後八時半부터는 活動寫眞을 映寫하야 多數觀衆에게 無限한 興味를 주엇는바 活動寫眞은 三日間繼續으로 一般의 同情金을 得하엿다더라(長湍)

松隅里에 公會堂

利川郡松隅面松隅里에는 相當한 集會場所가 無하야 一般이 恒常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有志 李殷鍾氏의 寄贈으로 校舍를 公會堂에 充用케 되야 一般은 매우 깃버한다더라(利川)

仁川驛客月業績

仁川驛의 客月中 營業槪況은 如左하다고(仁川)

▲乘車 一三、〇六四人 ▲降車 一二、一一四人 ▲入場 五七二人 ▲手小荷物發送 一四二、七斤 ▲同着 七九、三六七斤 ▲貨物發送 一五、四〇九噸 ▲同着 一六、五七五噸 ▲收入 客車 一五、一八二圓 ▲同貨車 四七、八二二圓 ▲合計 六三、〇六四圓 前年同月比 一一、一二四圓減

◇池在鎬君永眠

(仁川少年斥候隊常務幹事) 宿患으로 八日午前九時二十分에 永眠(仁川)

◇寸鐵◇

【淸州】 寂寞하기 짝이 업든 淸州에 近日에는 講演、討論等 集會가 드문드문잇더니 兩個月間에는 보지못하든 大滿員의 盛況을 呈하엿다 會가 잇서야 團結이 되고 團結이 되여야 살수가잇다 淸州도 從此로 躍光이 비칠까하노라

◇

【碧潼】 所謂『日鮮融和』의 盡目的으로 京城에서 온 改造社長 徐成烈君은 各官公吏와 市民을 모하노코 日本말로 長時間의 熱辯을 吐하엿다 그러나 市民들은 알지못하는 日本말로 一時間半이나 사람을 놀렷다고 不平이 沸騰하다 熱辯은 裂辯이 된모양

◇

【永興】 郡勸業係에서는 蠶種을 獎勵한다면서 國有林의 採桑을 突然禁止하야 桑의 市勢가 一躍四倍나되얏다 뭐 獎勵를 요모양으로하는것은 獎勵가아니라 禁止이다

◇

【安東】 四千餘戶가 廢業에 하야 당장에 죽는다고 號泣하는데 警察은 同情金募集外지 壓迫을 하고 富豪들은 何不食肉味乎나 찻고잇스니 四千餘戶二萬餘人이 다죽어야한단말이냐

期米 十日

仁川期米 第二報 後場先低後高

前場 阪地 四十一圓七十九錢止와 共히 三十八圓六十一錢에 軟弱히 場을 止하엿든바 後場에 入하야는 賣物一層旺盛하야 阪地初付 四十一圓八十一錢인 二丁反高를 振하고 三十八圓五十九錢인 反히 二丁低價로 場을 始한後 阪地 二節 八十六錢의 五丁高를 受하고 二節 六十四錢外지 跳返하엿다가 阪地 三節 八十錢으로 八十二錢인 焦付임을 觀하고 五十六錢으로 更히 五錢外지 低移하더니 結局 阪止 八十七錢의 報를 接하고 六節 六十錢으로 止際에는 ㊁의 買物이 續出하야 六十五錢에 小强히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는 七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圓二十二丁이더라

大阪場況 十日後場

昨後場 阪地場況은 地場新規買와 乘粹로 四十一圓八十一錢에 場을 始한 八十六錢外지 跳返한後 西路及株式筋의 賣로 八十錢外지 下押하엿스나 賣物이 不續하야 八十二錢外지 返戾하더니 結局 八十七錢에 頑强히 場을 止하엿다고

◇各地止價◇ 十日後止

	十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四一、八七	二四高
東京	四二、七九	三〇高
兵庫	四一、四六	二八高
下關	四一、七九	一四五
桑名夕後	四二、一八五	二〇
名古屋	四二、一八〇	四六高
金澤	四一、二〇	五二高
熊本	四一、七二	六高
仁川	三八、六五	一一高 六

◇阪仁氣配◇

大阪 六、七錢高

仁川 三十八圓七十錢見當

◇各限俵合◇ 十日後止

▲賣方 當限(計 三、000石) ㋑ 二、000 ㋺ 三00 ㋑ 五00

▲買方 中限(計 一五、000石) 天 五、000 ㊥ 五00 ㋺ 五、五00 ○ 100 ㊇ 一、七00 ㊄ 100 ㊄ 六、六00

▲賣方 ㋑ 一、000 ㋒ 一、000 ㋺ 一、三00 ㋑ 一、三00

▲買方 先限(計 三一、100石) ㋺ 二、四00 天 八、300 ㋑ 二、三00 ○ 三00

▲賣方 ㋑ 一、000 天 一一、四00 ㊃ 三00 ○ 三00 ㊄ 六、二00

▲買方 ㋑ 三、六00 ㊄ 二六、三00 ㋺ 三六00

高麗革命軍 資金募集에活動
룡정과국자가의동지와련락

최근훈춘(琿春)방면으로부터도라온모(某)씨의말을듯건대작년가을로령(露領)에서 무장해제를당하고 중령디(中領地)에 도러온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 삼십여명은동녕현하수보(東寧縣河水堡)디방에서 농사를경영하고엿든바 얼마전부터 다시독립운동을 이르키는동시에 군자금모집원(軍資金募集員)으로채병희(蔡秉熙)외륙명을 서대파(西大坡)방면에파견하야국자가(局子街)룡정(龍井)부근에잇는동지자를련락중이라더라(간도)

永明院主催 教育講演
십삼、사량일간

인천부송현리(仁川府松峴里)사립영명학원(私立永明學院)은원장김교익(金敎翼)씨와설립자인리종익(李宗翼)씨의열성으로입학난을 부르지지는이때에 현재백여명의 아동을 수용교수중인바 동교에서는 설립된지날이여름을 불고하고 직원제씨의품질또는 성력을희생하야 이번교회로용하야 동학원주와 각신최문지국후원아래에 사계에 명성이 놉흔 명사를청하야 오는십삼 십사량일간 인천산수뎡 공회당(山手町公會堂)에서 매일하오팔시부터 교육대강연회(教育大講演會)를개최하리라는데 연사는 리상재(李商在)박승철(朴勝喆)정인보(鄭寅普)리돈화(李敦化)동제씨외에 녀자연사두사람이라더라(인천)

別河校生盟休
사개됴건을데출하고

강계군성간면별하공립보통학교(江界郡城干面別河公普校)사학년생일동은 지난사일부터 돌연히 동맹휴학을하고 학교당국에 몃가지 요구조건이 잇섯슴으로 학교당국은 그요구에 응키어렵다고 강경히 거절하는동시에 맹휴생일동을 무조건으로 등교케할 방침을당디면장과 협의중이라는바 아즉 해결이되지못하고 학생의 요구조건은 다음과갓다더라(강계)

一、韓滋郁訓導를他校로轉勤케할것
一、理科實驗器機를充分히備設할것
一、運動場을完全히設備할것
一、運動具를滿足히備置할것

培花의饑饉同情金
일백칠십사원을긔근동포에 / 어린녀학생의눈물로모흔돈

시내 배화녀자고등보통학교(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는 빈한한 직원의수중과 어린녀학생들이 의공서부모가보내주는근소한비속에서푼푼히모아동정금일백칠십사원을긔근동포에게전하야달라고 본사로보냇는데동정금에첨부한편지일절을소개하면『금액이약소하나그중에는 만흔눈물이석기어잇습니다 이는 작년가을에 추긔수학려행을중지하여 그비용을 구제에쓰자고결의한배문에 최종학년은 졸업권에 자미잇게 한번 려행하려던인고로 혹자는감정의 달림으로규측에 버서진배문에 뎡학의벌까지당한 일종비극도 잇섯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소학생의 싸하쌀돈도들고 멀리온미국인 일본인의돈도들엇습니다 그리하야만치는못하나충심의동정심을한데묵거모은것이라고하겟습니다』

原州屠夫罷業
경찰의권고로

원주형평사원(原州衡平社員)들은도살료(屠殺料)가다른디방보다헐하다고 지난삼일부터 동맹파업을 하엿는데 소할경찰서에서 동사원을 호출하야 일주일안으로 취업하라고 권유한결과 즉시 취업은하엿스나 일주일이내에 원만한해결이되지 아니하면 다시파업하리라더라(원주)

京電의無理한解雇
사소한일로무단히해고하는가혹

시외고양군한지면행당리(高陽郡漢芝面杏堂里) 박봉희(朴鳳熙)(二二)는 경뎐차장(車掌)으로근무하여오든중 지난 十삼일오후두시십분에 오후근무를 하게되여 종일애쓰다니다가 밤아홉시에 시장함을 견대지못하야요기를하고자 뎐차과긔뎜식당(起點食堂)에

드러갓섯 든바마츰그곳에잇든승무원감독(監督)한계동(韓桂東)어가 신데검사(身體檢査)와차표판돈을 계산하라함으로 밥곱배가곱하 드러온것인즉 밥을먹은뒤에 할이조켓다고 대답하엿스나 한계동은 긔어코자긔의고집을 세우고자하야 비로소말다툼이 생기엇는데 닷닷내계동은 박봉희를다리고 사무실로끌어가서 역시감독이라는 김도상(金道商)과결탁하야 을연사직청원을데출하라는변변 김도상이가 박씨의모자에부튼 승무원표(乘務員票)를 아슨후 다시 승무지버서노하라

강요하엿 스나박봉희는 이에대하야 반항의 태도를보히지안코 도로혀사죄를 하엿것는데한계동과 김도상은 그어사가 몰는히여지며 가방과가위를 몰수한후 부리는사람을불러 박봉희의집에가서 회사에서 빌려준 물건전부를 차자오라는등 귀속히 소요를 이르키엇것스나 결국 이날밤은 그대로 헤여지고 그이튿날 박봉희가직접 소송긔주임(小松崎主任)을맛나이 면유를말하엿더니소송긔는 두말업시 대명(待命)이라하야 가서 기다리라하고그후여러날동안아모통지를

하지아니 할으로박은구일에 다시소송긔에게 질문하엿든바 소송긔도 역시사직을권고함으로 박봉희는 리유업는 사직은 자긔는 스사로할수업다 하고그대로 도라왓든데 이튿날안일반 승무원 사이에도 이것이박봉희 개인의일이아니요오백명승무원전부에게 도라오는 모욕이며수치라하야 긔유이울분한 긔운이 떠도는 중이라는데 소송긔주임은그날밤일쌘아니라여러가지사건이서로 얽키어잇서 그리한것인데 주요한리유는 파격한사상을천권한협의가잇서그랫다고하엿다더라

伊川에도風害
농작에손해가만타

강원도이천군(江原道伊川郡)에서는 동풍이륙일부터 시작하야 팔일까지 계속하야 모맥에 손해가 적지아니할뿐아니라 조가 장마에 녹아 업서지든것이 이번 동풍에모다마른다고 인심이불안중이라더라(이천)

벙어리남편과 쌉사등이안해
귀동자를낫다가 / 못길러서남이다려가

전북부안군 행안면진동리 칠백팔십일번디(全北扶安郡幸安面眞洞里)림락진(林洛鎭)(五二)은 어릴때부터 귀먹은벙어리로 사십여세가되도록 성취를 못하엿다가 칠년전에 본군 주산면매석리에사는 쌉사등이 김옥간(金玉干)과결혼하얏섯는데 지난륙월십오일에 옥동자를 나허일흠을 귀동(貴童)이라 하얏는데 쌉사등이가 자식을나키는 드문일이라하야 일반이 다희귀하게 너기더니 지난오월이십일에 그쌉사등이가 련노두에걸려 불행히칠일만에 무참히 사망한바그부자의정경은 참아눈으로 볼수가업섯는데 본리에사는 림정국(林正局)(四四)은가세가빈한하야 하두번어서 하두롤사는 처디에 잇는 귀동이를 칠세까지 길러주겟다고다려갓다더라(부안)

安州私校聯合運動
관중오천으로공전의성황 / 참가학생도가천여명이다

안주사립학교친목회(安州私立學校親睦會) 주최의안주사립학교련합운동회는 예뎡대로지난팔일 안주청내삼수구락부(隆水俱樂部)운동장에서 동회회장 김뎡선(金廷善)씨의 개회사를이어(東明、大興、共成、道明、大明、育英、維新、普光)등열학교의생도 약천여명의 굉장한입장식등을 비롯하야 장엄한가운데순서를따라 경기를 진행하얏는바 환호와 갈채에싸힌 긴장리에 데일일경기는 거행되엇스며 구일도 무려사오천의 성황리에경기를 계속한바『마라손』경주에는 약삼리상거되는원두포(元頭浦)의회주이엇는데 일착은십삼분을요하엿더라

◇마라손競走成績
一着維新校崔禮山▲二着維新校金貞一▲三着大興校朴春三▲四着大聖校金仁梧▲五着普光校李善鳳

그러고 경기의총성적은 유신학교가 륙십팔뎜으로최우등을 점령하엿슴으로 우승긔는 동일하오 륙시반경유신으로 몰아갓더라

◇各校競技成績

一等	維新 六八	六等	道明 一八
二等	大興 六五	七等	錫溫 一五
三等	普光 五〇	八等	大聖 一二
四等	共成 四〇	九等	東明 一〇
五等	育英 二七	十等	大明 二

優勝旗가말성
필경서로양보

대회의순서가 착착진행할때 여러번 불평을토하는 학교와또 퇴장까지 하엿던학교가 두곳이나 잇서 매우섭섭하엿던바 필경은 대회의정신은 친목에 잇스니퇴장은 필요치안음을 쌍방에서 깨달아경기는잘 진행되엿섯는데 뭇호로 우승한유신학교에 부정선수가 잇다하야한때 말썽이 잇섯스나대회의 정신을 확립하기 위하야 필경은 묵인하기로되얏더라(안주)

◇사진은==안주사립학교련합운동대회의광경(긔사참조)

學生暴行事件
印工對京中交涉
일조、이조는동의를하나 / 민족뎍감정은 아니라고

경성인쇄직공 조합에서는 금번경중학생(京中學生)폭행사건에대하야 세가지조건의항의서(抗議書)를학교당국에 데출교섭코자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이제 그조합대표위원의 교섭전말을듯건대 구일오후 다섯시경에 부상한농지를 방문한교섭위원삼씨는 교장머리인목흑(目黑)씨의사례를방문하야 위원김영팔(金永八)씨가강경한태도로「귀교학생의 폭행행위는너무나 우리조합원을무시하는동시에 조선인을 멸시하는행위이매 우리와서 리조합으로서는묵과(默過)할수가업서서우리삼인이조합을대표하야귀교에서압흐로장차엇더한방침을취하는지그를듯고자왓노라」하매목흑씨는그사건에대하야는부상한사람이나또는사회에대하야 너무나 붓그러워서무어라고말슴을엿주어야 조흘지모르겟다하매 동위원중강수성(康洙成)씨가 버분강개한태도로당일에일이난던말을 부상자에게서드른대로 설명을하매 목흑씨는 다만미안한말슴은 이로부어라 엇슬수업다하매 이말에 분개한 위원중 리응종(李應鍾)씨는「나는이번문제를 아모리 호감(好感)을가지고 해석을한다할지라도 소소한 청년서리의문제만으로는 볼수가업다 그는현장에서 폭행학생들이 통행인의남녀로소를 물론하고 조선사람만보면함부로란타(亂打)한것을볼지라도그는엄시적현긔에서일어난감정의충동이아니요적어도일본인은조선인보다는비교적뎡도가종낫다는 민족적감정을 가지고고의(故意)로이가튼꼭행을한것이죽 우리는당신들의 처치여하에의하야 장차 이문데를사회로 더부러 가리원만한해결을요구하겟다」는한목흑씨는그럴리가 엇겟슴니가 그것은아마귀하의오해이겟지요 우리로서는 어데까지면지 민족관념을 떠나우의적(友誼的)으로당신네를대하야 일조、이조는물론미약하겟스나 제삼조에대하야는 문데가 중대한고로 교장이도라온후에 하여달라고 하매위원들은 후일을긔약하고도라왓다더라

抑鬱히執行當한 崔廷晙의情境은
당디조선인은물론이오 / 일본인까지동정이만타

안주군신안주면원흥리(安州郡新安州面元興里)사십삼번디 최뎡준(崔廷晙)이가 억울한 집행을당하야 자긔안해의 명의로는 긔까지 내인집에서 쫏겨나와그의가족들과 길가에서 방황하는가엽슨정경에대하야법률상문데는하여간인도상참아못볼일이라고 일반은생각하야 자못흥분상태에잇서 신안주소방조의 열정으로모집과 신안주주민의 동정금으로가옥(假屋)까지지난사일과오늘량일동안에최뎡준에게지어주엇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돈이며 기타량식까지 마련하야범위를넓혀서 가옥의경비는 물론더욱 흥분뎍으로 동정금의최뎡준이가 자긔의집을 찻는그때까지라도 힘써도와 주자하야떠든다더라 동정금이벌서 다대한 액수에니르렀고 또그동정한층에는 일본인도 다수이라는바 근래에처음보는귀상들이두엇다더라(안주)

培花女高도 평양에원정

평양(平壤)에서 열릴 데일회녀자뎡구대회(女子庭球大會)에시내의 사계강군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梨花)와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 네조(組)가 참가할것은 간긔보와갓거니와 시내에서도 가장맹장의 일홈을듯는 배화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에구애되야 고려중이든바 긔어코 참가하고 거줘십일본사에 신청을하얏는데 동군은 저번에 경성녀자고보군과 싸화 애석하게 패를당하얏스나 기술에잇서서는상당한자신이잇스며『멤버』는다음과갓더라

白順伊 李永愛 禹智命
蘇貴妃 文玉善 吳立分

培材野球遠征
남상업과대전 / 십일밤인천에서

석간긔보=본사인천지국후원배재고보(培材高普)의야구단이인천에원뎡하야십일밤오후세시부터 인천산수뎡 공설운동장에서 인천의 강군남상업학교(南商業學校)와 야구경기를행할터인바 동군은 금십일 오전아홉시십오분발렬차로인천에향하야 떠난다더라

培材對仁川南商野球戰
十一日午後三時부터 / 仁川山根町公設球場 / 後援 朝鮮日報社仁川支局

업다고하야 학생에게 악감정이든킨것인데 동던교사는 맹휴가된후에『너희들이교사가 실타하고 동맹휴학을하면 우리는안커서 월급을먹을려니 할터이면하여 보아라하며 또퇴학이면 다퇴학하여라 나는아모밋업다하며

여우교장 은화생을임일히불러세우고 이후는 무슨일이잇든지 이러한행동을 하지안켓다는서약서(誓約書)를바더가며 교사를배척한다고 도로혀 호령만함으로학생들은더욱불평이심하다더라(아산)

尹和洙聲討事件
最上禁錮四個月求刑 / 피고십사인은열렬히변론 / 언도는십일일에될터이다

간도영신중학교(間島永新中學校)이관문데(移管問題)로 인하야 발생한윤화수(尹和洙)성토사건의명예훼손(名譽毀損)공판은 지나간이일적사검사(赤司檢事)로부터 피고(被告) 십사명에 대하야 아래와가튼 론고(論告)가잇섯는데 이에분개한 피고들은검사의론고가아조부당하다하야 각각열렬한변론이 잇섯스나 판결언도(判決言渡)는 십일일오전구시라더라(간도특신)

李泰俊重鍾禁錮各四個月洪錫禧金英浩林元基金奎復金鍋秀李京鎬金斗福金俊星金鑛田性元李能雨任永彬禁錮各二個月

牙山校生盟休
藤田教師를排斥 / 요설과압박이심하야

충남아산군 령인면(忠南牙山郡靈仁面)공립보통학교 륙년생사십여명이 지나간십일경에 륙칠조의 비행을드러 등뎐(藤田)교사를 갈어주지안으면 결대로교수를 바들수업다는 의미로진정서를 데출하엿다는데 그내용을탐문한바에 의하면 동교륙학년교사등뎐은 원래 경찰관출신으로거금 삼년전부터 교육계에드러와서

이래교육 에종사하든중 학생에게 무리한행동을 할으로비난이 자자한중인대 근자에와서는 횡포가더욱 심함으로학생들은 합일엽시당교 령무교장(鎭武校長)에게 진정서를 데출하엿는데 그내용을 대개소개하면 면생도중 무엇이든지 교사에게무르면 자습서(自習書)를 두고서 웨나다려뭇느냐고하며 교수시간은

물론이요 보통시간이라도조선말을쓰지말라고하며 면서도자긔가학생에게욕설을할때에는 반드시조선말로만이놈아자식놈이라하며 조선말은디방어이지국어가 아니닛가 쓸필요가

永興金融移轉과 候補地問題紛糾
시민유지가모히어의론후 / 대표를선정하야교섭까지

함남영흥 금융조합(永興金融組合)은삼만원예산으로 구세무서(舊稅務署)긔디에다가건축하기로예뎡이든중 총독부 당국에서 용허치 아니함으로 부득이다른장소에이전할터인데 데일 후보디로 시내도정리에잇는 일인디뎐(池田)의소유토디이천여평을 선뎡하엿든바 그긔디의 전면에잇는 일인소실(小室)의소유토디약 팔십평을사용치아니하면

안될경우 인바이긔미를 본소실은지뎐이와 먼저엇던선약이 잇섯다 청탁하고뒤배로 방해할뿐아니라 동조합리사부총(富塚)이와엇던비밀이잇는듯함으로 동조합원중 시내에거주하는 시민유지 사십명이지난팔일 오후두시에 읍내면사무소회의실에 모히협의한결과 대표자오인을 선거하야 동조합리사와 소실을 방문케하엿는데

리사부총 은모호한말로조합긔디는 이뎐대로 두든지그러치아니면측금예뎡디인지뎐의토디를 소실에게 사도록 하고 우리조합에서는 소실로 부터다시 사는것이 어느방면으로 보든지 편하겟다함으로 이에교섭위원들은 분명한어됴로조합

위탁하고 다시사려하면 부당한 가격을요구할지니 그리로부터 조합에서 인수할이유도 업스니 우리시민유지가 살려이와 조합에서 인수함이 조흘것이아니냐」하매 리사는부책임한말로 좌우간 소실이와타협하라하고 말엇다는데 이에대하야 시민대표들은 ▲시소실을 방문하고 만약지면의 토디를일향자긔가 선취득권이 잇다고주장한다든지 또는자긔의 소유인 십일평에대하야 부당한 가격을불으면상차

시민대회 까지열고소실의경영인상점(商店)까지비매동맹을단행하겟다하고위선리사의행위를 덜더히 묘사하는동시에의공긔는매우긴장중에잇다더라(영흥)

養女가實相奴隷
경제곤난과인신매매 / 양녀로다려다가작부

시내수표뎡(水標町)오십일번디 김영숙(金英淑)의딸류향란(柳香蘭)(一四)은 모녀간고독하게살아가든중

생활곤난 으로할수업시 지난이일에 동산관내산수뎡(山手町)칠번디 김상옥(金相玉)에게현금일백륙십원에양녀(養女)라는명의로만 칠개년동안 고용계약으로 몸이팔리게되여 그이튼날부터 철모르는어린계집아이가 술상을압헤노코원치안는 사나이에게우슴을팔지안을수업는 불상한처디에 빠지게되엿든바소관동산경찰서보안계(保安係)에서는 그사실을 탐문하고십일아춤녀중하야 그모든사실을 조사한후 설유하야 돌려주엇다는데 근래에흔히 소액의금전으로도 남의딸을다려다가 양녀(養女)이니무엇이니하는명의를 빌어가지고 장긔의 노예(奴隸)를만들려는무리가만흠으로일반은주의할일이라더라

仁川勞總總會
임원개선과 / 모든문데를결뎡할터

일반회원이 고대하든 인천로동총동맹회(仁川勞働總同盟會)뎡긔총회는오는십삼일오후칠시부터 내리(內里)례배당에서 개최하기로하엿는데 ▲ 전일위원회에서 선뎡된 총회준비위원은모든준비에 분망중이라하며 총회당일은 일반회원의 다수출석을바람은 물론이오 사회의방령과지환영한다는바 총회의 사항을 결뎡하기위하야 지나간십일오후팔시부터 화평리(花平里)동회관에서 위원회를 열엇다더라(인천)

미련하고도 씨만흔妓生
거짓강도를고발하고 / 경찰서구경

경북경주(慶州)경찰서에 취장에는 씨가튼 이팔청춘의 미인이가 처어잇서서 날마다 사법실에나와 형사압헤서 무릅을꿀고 엄중한심문을 밧는녀자가 잇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건대 그미인은 경주군산내면 덕동리(慶州郡山內面德洞里)에사는 권홍도(權紅桃)라는기생으로서얼마전에 그곳엇떤한자와부부가되야일평생을 단락한가뎡을 일우어자미스럽게살자고남몰으게 약속하고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상전이 되는 한이잇더라도 우리두사람은 변치말고살자고약속을 하얏섯는데 그와가티 약속을 한 뒤에 권긔홍도가하루는말、나에게도상당한 재산이잇스니 당신의가진 바 재산도 전부가지고와서 내것과합하야 가지고 살자고하얏는데 사실홍도에게는 한푼의돈도 업슴으로만일훗날에 자긔의남편될 사람이 돈을보이라고하면 자긔의말이 거짓말이 될것을미리겁을 내여서 자긔의집에 도적이 드럿다고 그곳주재소에 거짓고발한것이 결국드러낫슴으로 그와가티 심문을밧는중이라더라(경주)

돈좀먹으랴다가 욕만먹고말엇다
자동차고무를안빌리랴다가 / 인심만일코빌려주게되얏다

남원읍(南原邑)최경삼(崔京三)씨는그삼남최종선(崔鍾善)(二三)과운봉구읍(雲峯舊邑)에사는정모(鄭某)의딸과약혼한후지난륙일에 결혼례식을 거행케되얏슴으로 남원읍에서는 근근히한대의자동차를어더 몃사람의 축하객과가티 운봉신부의집을 가서 혼인례식을 무사히마치고 도라올지음에이르러 별안간 자동차의속『고무』가터저서도저히

도라올수 가업슴으로권긔축하는중한사람이요또는현재 남원읍에서 자동차영업을 하는 김성수(金成洙)씨는하는수업시 현재 전북도평의원(全北道評議員)이요 당당한부호로운봉읍내에서자동차영업을하는박희옥(朴熙沃)(三三)씨를 자긔자력으로차진후『준비품으로잇는 자동차속『고무』한벌을세를맛고빌려주든지팔든지하여야남원으로도라가겟노라』고누수히 간청하엿스나

박희옥은 절대로빌릴수업다고 거절하얏는데 그의표정을보면『남원자동차가 가지못하면 한그자동차까지라도 해데하야자긔자동차로 운반하게되리란』는욕심이잇는것이완연히보이는바 김성수씨는 하는수업시박희옥에게대하야『당신은사람이아닌 년』물건으로변하엿다』고한마되말로

욕을막고 박희옥의집을 나서 백배사죄의 애걸을하엿스나 박희옥은 그래도분이남엇든지 그이튼날에이르러는 남원운봉간(南原雲峰間)뎡긔

왕래차를 하로동안이나정지식혓슴으로 일반려객에게 비상한 곤난을쥬엇슴이 잇다는데 일반은 박희옥의결속이 다른일본사람의 동정만도못하다고 비난이자자하다더라(남원)

黃州에竹棒強盜
범인은종적이묘연

황주군 주남면대열리(黃州郡州南面大悅里)리관형(李官亨)의집에는 지난오일밤에 두명의 강도가침입하야 참대(竹)몽동이로 리관형의 내외를무수란타한후 현금십여원을 강탈도주하엿는데 이급보를 들은황주경찰서에서는반뎐(飯田)경부이하수명이 현장에 출장하야일일히 묘사한후 사면으로 수색하엿스나 아즉아모 단서를 엇지못하고 방금엄탐중이라더라(황주)

高原郡民 態度強硬
도령을거처서 / 총독부까지진정할터

함남고원군(高原郡)에서는사설강습소(講習所)설치문데가도회(道會)에 큰풍파가생기자 일반군민은 무성의한 군당국을 여디업시규탄하는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여섯가지 조건을 당국에교섭하기로하고 집행위원 다섯명을 선뎡하여왓는데

여섯가지 중에두가지는 허락하엿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그외의네조건도상당히조치할수잇는것이나 군당국자가누리하게거절함으로 이것을분개한군민대표는방향을고치어도령에진정하야도 불응하면 총독부까지라도진정하리라는데 군민의정당한 요구를

군민대표 모씨는분긔를띄우고말하되지금군민이요구하는조건여섯가지 중에 물론다중요하고 긴급한일이지오마는 그중장뎐농산매사건에대하야군동회(郡洞會)사건에대하야는우리 고원군민이 죽고사는큰 문데가 아니라고 할수업습니다 그럼으로도령에가서 원만한량해를엇지못하면 최후로 총독부까지 진정하고저합니다 또한이번

발생한곳 이고원이낫가 고원에서 녀니히 조처할것인데 김군수(金郡守)와군서무주임농림(郡庶務主任農)의실태에서 나온것이오 더구나 그후에도여러번 등탐이가모든것을 뺑정하게한은 우리의주의할점이오나 더라(고원)

善山雹災와 饑饉民의慘狀!
보리싸지못먹게되야서 / 청년회에서구제에노력

지난오월이십구일오후일곱시삼십분경부터선산군(善山郡)산동장천(山東、長川)량면디방에는 콩풍과 우박이 이십분동안이나 계속하야 콩풍에가옥이 넘어진곳도잇스며 우박은 크기가직경한치팔분가량이나되는덩어리로떠러저 초목입새는 느진가을서리를(霜)이마저죽은것이다섯마리나되며 농작물은 보리가을이절박한이때에 대맥소맥할것업시 디가되야 그리방손해가 약이만여원에달한다는데 던녹히직면한재로서 긔근에신음하는 인민들은 보리가을만 바라고잇든터에뜻밧게 그와가튼재해를입어 참으로죽을밧게 업는참담한디경에빠짐으로선산청년회(善山靑年會)에서는림시긔근구제회(臨時饑饉救濟會)를조직하야구제금을모집중이라더라(선산)

張氏飛行機墜落
인도교우에서떠러저긔계파쇄 / 장씨는무사、고판긔자는부상

룡산근처한강에착수(着水)중이든장덕창(張德昌)씨가조종하는 비행긔부흥호(復興號)는십일오후세시경청을 방문하기위하야인도교(人道橋)상에서 찌핑몰을떠나날다가 엇진까닭인지 떠러지어한강신사(漢江神社)아래벼사장에 떠러져 비행긔는 산산조각이낫스나 조종사인장씨는 무사하엿고 가러탓든 긔자 고판(高坂)씨는 부상하엿더라

金堤에暴風
농작물에피해가만타

전북김뎨(金堤)디방은지난칠일부터 폭풍이불기시작하야 연삼일간을계속한비모맥으로부터일반농작물에 피해가적지 아니하더라(김뎨)

日青年의縊首
가뎡의불화와신병으로

원적을복강현(福岡縣)에두고지금에장진읍(長津邑)에서잡화상(雜貨商)을하는 송뎐진오랑(松田辰五郎)의셋재아들 송뎐진생(松田辰生)(二三)은지난일일오후 아홉시경에 읍내 뎡출자뎐거포(井出自轉車舖)뒤변소(便所)에 허리띄로목을매여 자살코저하는지음에 마츰그형수(兄嫂)에게발각되야 목뎍을이루지못하얏는데 그원인은 송뎐의형(松田義雄)이란자가 원래 일은업시 그권부러도 집을나와 유숙하면서 날마다 방탕하게 지내는터인데 원래에 몸에병이 잇슴으로명이심한로동은 하지도못하고따라서굶게되나고형은조금도도라보지안코몸에병이잇기와 됫흔로동은 할수업서 세상을비관하고그와가티 죽기로 결심한것이라는데 그리고도 먹을것이업서굶어느러저 누엇스나 그형되는자는 돌아보는일이 업나더라(장진)

頻頻한自轉盜難
한달에삼십여건

지난삼월일일부터오월말일까지 시내본뎡경찰서관내에서발생된 자뎐거 도난사건은 총수칠십이대약사천륙백칠십팔원에 달하엿다하며 이것을 월별로보면삼월에 이십칠대사월에 삼십일대오월에이십사대라는데 일반 자뎐거사용자는 특히주의 하여야되겟다더라

窃盜贓品을破壞
처치할수가업서서 / 범인은데포취됴중

구일오전에 서대문 경찰서안에는파괴된 자뎐거(自轉車) 재봉틀양복、구쓰、아이의등철도징봉 이산과가티 싸혓는데 그것은개성군(開城郡)출생으로시외아현북리(阿峴北里)일백삼십일번디에류하는강도영(姜道永)(三二)이란자가시내각처로도라다니면서 절취한장품을 처치할수가 업서 파괴한것이라더라

空車에轢死兒
아이들서리작란하다가

전북정읍군(全北井邑郡)영원면(永元面)운학리(雲鶴里)에서는 지난오일오후팔시경에 어린아이 한명이 우차에치여서 무참히죽엇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그날 저녁밥을먹은후에그동리아이들 수십명이 그동리 진학도(陳學道)의구루마를 메아이는다고 아히는물고 그동리 큰밧축가에지가서는도라오라고구루마를 릴때에 구루마압이 떠그러저 낭떠러지로굴러나러가는바람에 그동리현윤경(玄允京)의아들 살먹은옥남(玉男)이가그와가티 치어무참히죽엇다더라(정읍)

勞資協調의 勞盟組織
경성에서 / 일본인중심으로

시내원뎡사뎡목(元町四丁目)백십번디에사는 일본로동총동맹리사(日本勞總理事)겸동회조선지부고문(朝鮮支部顧問)으로서 조선로동협회(朝鮮勞働協會)리사로잇는「토목청부업교본조(土木請負業橋本組)」지배인 성출뎡웅(星出正雄)은 전긔협회에 좌관조합(左官組合) 해륙로동(海陸勞働)조합 목수(木手)조합 로공(土工)조합 텰공(鐵工)조합등을 조직하야 긔업자(企業者)와 당국(當局)에 대항적(對抗的)으로 들어가지고 노동자의 단결을세우고저 한다는데 그긔관은 즉 일본로동총동맹의 연장(延長)으로보는동시에 사법 당국에서는 감시중 이라하며 이에대하야 동산서고등계 소판주임(小坂主任)은 말하기를『그긔관은 좌경(左傾)의색채를띄고잇는것은아니고극히온건한태도로자본주와밋로동자사이에충돌이생기지안케 미리원만한 타협을해나가려는것이니 결코위험시(危險視)할것은아닙니다』하더라

車衝突이 人衝突로
자동차와 자뎐차관상들이

구일오후에 시내종로통일뎡목(鐘路一丁目)칠십삼번디「미가도」자동차부에 운뎐수로잇는 박치중(朴致中)(二三)은 대판조일신문사원(大阪朝日新聞社員)을 태우고 자동차를 몰고한강인도교뎍으로 나가는 도중 한강통(漢江通)에서 리해천(李海天)이가 자뎐차를 타고 오든차와 서로 충돌이 되엿는데 리해천은 운뎐수에게 변상하야주지안는다고 자동차를 차압하려하매 일본인삼명도 따라와서 서로싸호게되어 현장에는 큰소동이 일어낫다더라

南大門通夜市
야뎜이백삼십

남대문통야시(南大門通夜市)는 작년보다 더정대하야 당야를 허한야뎜이일백삼십이엇스며 압흐로 십여일동안에는 일백오십뎜에 달하리라는데 금년의 야시는 작년보다 훨신 흥성하리라더라

市井雜事

◇十七歲少婦夜半出家 시내중림동(中林洞)이백구십일번디리용덕(李用德)의처김차옥(金次玉)(一七)은 칠일새벽 네시반경에 집안사람들이 다잠든틈을타서 도망을갓슴으로 전긔리용덕으로부터 소관 서대문서에 수색원을데출하엿다고

◇正誤 大正十四年五月二十四日貴報第一七一八號第二面에揭佈된日本勸業銀行債權으로取扱하는部大正興業社京城出張所外交員沈遠哉、李鍾敏이가勸業債權詐欺라記載함에對하야利川郡新屯面長李秉興外七名이告訴하엿다함은全然無根한事實이記載되엿스니速速히正誤하심을望함 大正十四年六月八日 利川郡新屯面長 李秉興 朝鮮日報社貴中

휘파람

▲전북(全北)정읍군(井邑郡)정읍면(井邑面) 수성리(水城里)에거주하는 리재명(李在明)(三二)은 삼년전에 동리 심순애(沈順愛)에게장가를 든바 그때심순애의 나히열네살인때에 ▲혼인신고를 아니하엿다가 한후얼마안되어서 남자를 나코또얼마안되여서 ▲리혼 문데가이러나서그대로 부부가갈려선바 그유아를누가 기르느냐는것이문데가 되여서 필경은공판까지 불려가서 ▲그어미된 심씨가 아기를기르다가 그귀찬는고생을 십육세인리혼된 녀자의단독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으로그유아를▲그아비되는재명의집으로 보내매그집에서는 그유아의 생명을위하야 떡방으로길러도 졋참이가려마는다고 조흔외톄한로치업는작녀가고롤